

광주지역의 산재한 창업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장

송 원 대 학 창업보육센 터



송원대학 창업보육센터장 | 윤석암



송원대학 창업보육센터 -

송원대학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윤석암:메카트로닉스 교수)는 자동차/기계 및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특화분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전담 매니저 1명과 행정요원 1명이 근무한다.

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크게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1999년 9월 1일에 대학자체 6개 업체로 보육센터를 운영하였고 2001년 3월 12일 정부지원 하에 입지여건이 좋은 광주공용터미널 인근의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 뒤편 생촌동 송원대학 교육연구소 부지에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여 12개 업체를 입주시켜 운영하던 중, 2004년 6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장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육실을 확장하여 7개 업체를 신규로 입주시켜 현재 19실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설립 목적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및 우리대학 발전 정책에 따라 광주지역의 산재한 창업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산업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신규 창업업체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공동기계시설 제공,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자립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이다. 특화분야인 자동차/기계 및 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중점육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벤처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입주업체에 기술·경영지도, 정보, 벤처, 투자유치와 장비지원등을 통하여 입주기업들이 성공창업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창업환경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 윤석암 센터장은 “센터는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지금 확보와 판로 및 마케팅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대학과 중소기업청의 연대를 구축해 창업 초기의 신규 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사무 기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의 고급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1업체 1지도교수제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기술 및 지식 산업형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센터는 별도의 정보통신실을 구축해 입주기업들에게 인터넷 전용선을 지원 및 최적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들은 24시간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윤석암 센터장은 전공 특기를 살려 매주 1번씩 1~2개 업체들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애로 사항을 자문하며 해결을 위하여 기술 지도를 하면서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또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주 졸업업체들의 생제품을 알리기 위하여 졸업 및 입주업체들의 개발제품전시회와 간담회를 7회째 시행하여 제품판로개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센터 개소 이후 정부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에 6개 업체,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에 5개 업체, 광관련사업 2개 업체 등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다면서 “앞으로도 향후 더 많은 입주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금까지 19개 업체가 졸업했으며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2007년도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약 45억원이며, 년간 30%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보육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39명으로 고용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자식자산권 보육실적은 현재까지 특허등록 7건 출원 53건, 실용신안 등록 3건 출원 12건, 상표등록 2건으로 센터의 벤처기업 육성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벤처기업 4업체, INNO-BIZ 2개 업체로 기업의 경쟁력에서도 우수한 센터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성과와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는 5년 연속 우수 보육센터(A등급)로 선정 되었다.

센터의 졸업업체 중에는 2007년 3월에 광주 광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광통신용 커넥터와 광 관련 장비를 개발하여 2007년도 매출액이 20억을 올린 링크라인 I&O(대표 김상기)도 있으며, 입주기업 중에는 광산업분야의 LED응용제품 개발업체인 지에스티(대표 김성식)는 LED응용제품 생산업체로 LED응용제품을 개발해 광주와 창원 월드컵경기장 성화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레이저빔을 활용한 도로차선 표시장치와 레이저 문자용 간판의 양산체제를 서두르고 있는 위너테크(대표 조재익), 도로 간길 잡초억제제용 Grass Cover와 도로용 차선표시 장치를 도로공사와 협약하여 제품 테스트 단계에 있는 준 E&O(대표 김동규), 간판용 LED모듈과 실내용 형광등대체 제품인 LED모듈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CB3(대표 최중영), 태양광 응용제품 개발업체인 디디솔라테크(대표 윤영찬)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주업체들이 광주 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광주지역 역점사업인 광산업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관련 입주업체들에게도 기술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원대학 창업보육센터 전경



디디솔라테크 태양광 응용제품 설치



지에스티 LED응용제품인 성화대를 제작하여 광주와 창원 월드컵경기장에 설치